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어 순간부사에 관한 역사적 연구

왕 철

2011년 8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국어 문헌자료에 나타난 瞬間副詞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 특성을 정리·기술하는 것이다. 한국어 문헌자료 중 특히 중세한국어시기 문헌자료의 대부분이 諺解資料이기 때문에 본고는 순간부사의 용례를 살펴볼 때 漢語와의 對照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순간부사의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순간부사의 의미 특성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순간부사를 기준시가 있는 순간부사와 기준시가 없는 순간부사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연구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순간부사의 목록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시간부사가 의미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하위분류되는지, 순간부사가 무엇인지, 순간부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국어 문헌자료에 나타난 순간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전과 閔賢植(1991) 등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그 중에 순간부사의 기능이 주된 기능이 아닌 것들과 확인된 용례가 너무 적어서 다루기가 힘든 것들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장에서는 기준시가 있는 순간부사를 다루었다. 기준시가 있는 순간부사는 기준시의 직전 시점을 지시하는지 직후 시점을 지시하는지에 따라 과거지시적인 순간부사와 미래지시적인 순간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지시적인 순간부사로 ‘ㄱ·ㅅ’ (纔, 恰纔)類와 ‘앗가’ (纔, 恰纔)類를 고찰하였고 미래지시적인 순간부사로 ‘곧X’ (卽, 便, 當)類, ‘곧득1’ (便)類, ‘今方’, ‘方將’類, ‘卽X’ (卽, 便, 就)類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존 논의에서 미래지시어로 간주되었던 ‘이 셔’ (就)類에 대한 기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 외에 각 단어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면서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인 경우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밝혀냈다.

4장에서는 기준시가 없는 순간부사를 다루었다. 기준시가 없는 순간부사는 해당하는 단어가 원문에서 주로 어떤 한자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한어 ‘忽’에 대응하는 순간부사, 한어 ‘頓’에 대응하는 순간부사, 그리고 한어 ‘卒’에 대응하는 순간부사로 세분할 수 있다. 한어 ‘忽’에 대응하는 순간부사로 ‘홀연히’ (忽然-)類와 ‘곧득2’ (忽)類를 고찰하였고 한어 ‘頓’에 대응하는 순간부사로 ‘모로기’ (頓)類와 ‘곧득2’ (頓)類를 고찰하였으며 한어 ‘卒’에 대응하는 순간부사로 ‘가·기’ (卒)類, ‘가·기·이’ (卒)類, ‘장졸애(倉卒-)’類, ‘졸연히(卒然-)’類를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도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인 경우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밝혀냈다.

5장에서는 결론 및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